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체계와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선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로 진입했다. 기후변화, 초고령화,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 이질적인 거시위험 인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이 전면화되면서 전통적 상업보험의 배제 논리로 인해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Protection Gap)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 연구기관인 스위스 리(Swiss Re)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보장 공백 규모는 약 1.8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자원 보유량이 적은 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역진성(Risk Regressivity)'으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함정으로 내몬다.

특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인프라 부족을 넘어 고도화된 시스템 내에서 오히려 소외가 가속화되는 '구조적 역설'에서 비롯된다. 10% 내외의 높은 보험침투율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 미보장률이 58.4%에 달하는 '보장격차의 역설', 세계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에 비해 공적연금과 돌봄 인프라가 미성숙한 '속도의 역설', 디지털 전환이 오프라인 점포 축소 및 알고리즘 배제를 초래하는 '기술의 역설', 그리고 기후재난의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교차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 전환기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역설 속에서 기존 상업보험과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탄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 협력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안전판으로서 '한국형 포용보험(K-Inclusive Insurance, KII)'의 도입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 상업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위험의 독립성 가정을 전제로 하나, 초위험사회의 다중위기 환경에서는 리스크 간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민간시장의 인수 불능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 유병자,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민간보험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내 포용금융 및 보험의 현실 역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이나 대출이용자의 채무상환 지원 등 서민금융 보조수단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질병·돌봄·소득중단·기후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체계화하지 못했다. 또한 위험 유형에 따라 담당 부처와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은 제약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연성을 갖는다. 우선, 사고 발생 후 현금 보상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후 보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및 실물 돌봄·간병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소외되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효율성과 인적 신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피지털(Phygital)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단년도 예산이나 일회성 기부금에 의존하는 파편화된 구조를 탈피하고, 민·관 상생기금, 국가재보험 풀링, 그리고 비례적 규제혁신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정 및 거버넌스 설계가 요구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초위험사회론과 포용금융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필리핀·인도(개도국형 생존형 혁신), 영국·일본(선진국형 적응형 혁신) 등 글로벌 주요국의 운영 메커니즘과 혁신 사례를 심층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포용금융·보험의 연대기적 발전 과정과 현행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최종적으로 한국형 포용보험의 개념 정립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글로벌 정책 리포트 분석, 국내외 주요 통계 및 실증연구 데이터의 종합적 고찰, 그리고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비례성 원칙 등 규제 철학에 기반한 제도적 정합성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초위험사회와 다중위기의 실체를 진단하고, 포용금융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포용보험의 개념 재정립, 그리고 IAIS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필리핀·인도·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생존형 및 적응형 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피지털 융합 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포용금융·보험의 연대기적 변화를 살피고 보장 공백, 재원 분산, 데이터 취약성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이론적·국제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포용보험(KII)의 개념과 지향점을 설정하고, 4대 혁신 방안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